

격려말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우리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4.16순례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순례 출발식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국민들은 지난달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을 만감의 심경으로 지켜보면서 참사 3주기를 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월호가 지났던 서해안 뱃길을 따라 인천에서 팽목항까지 마을과 마을을 잇고, 누구든 홀로 걸어도 좋은 길을 조성하고자하는 순례길이 만들어진다면,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아픈 상처를 생명의 존중으로 승화하고자하는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은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신항에 법당을 마련하고, 아홉 분의 미수습자들이 속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현장에서는 잇따라 미수습자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어 미수습자분들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진정성 있게 수습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53일간의 국민순례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 사회안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순례길은 별도의 전담인력이 없이 순수하게 전국에서 뜻있는 시민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봉사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에 앞장서주신 여러분들에게 거듭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따가운 햇살아래 고된 길이 이어지겠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순례길이 되

어 우리 사회에 생명의 환한 길이 넓게 열려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1년 5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